

학살 기록 넘어 공동체 보듬었던 광주 노천에서, 박물관에서 연극은 계속된다

제주 아트스페이스씨 기획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흥성담 오월 판화전 '새벽' 엄혹했던 시기 기억 투쟁



이중섭미술관 제공

4월을 품은 섬 제주에서 5월을 이야기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아트스페이스씨(대표 안혜경) 기획으로 지난 4일 막을 올린 흥성담 판화전 '새벽'이다.

이번 전시엔 '오월민중항쟁' 연작 50점이 나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고통스러운 기억과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작품들이 펼쳐지고 있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잔혹한 학살을 벌이자 광주 시민은 온힘을 다해 그들의 민행에 저항했다. 하지만 기억을 틀어막으려는 신군부의 압살로 인해 학살현장을 기록한 사진 한 장 구하기 어려웠다.

흥성담 작가는 엄혹했던 그 시기에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판화를 택했다.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판과 조각 도를 재료로 탄생한 판화는 복제 가능하고 휴대하기 좋고 좁은 공간에 쌓아 보관하기에 적합했다.

그의 작업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에 따라 그때그때 쓰임새에 따라 이루어졌다. '햇볕행진' (1983), '꼭두각시 놀음' (1984), '혈루' (1984), '대동세상 2' (1984), '사시사철-봄' (1985), '투사회보' (1986), '가자, 도청으로' (1988) 등 1980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진 그의 오월 연작 판화엔 당시의 참상을 넘어 공동체를 지키고 구하려는 시민들의 항쟁과 자부심, 위무와 진혼이 스며있다. 저항의 정신과 권리로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광주시민들의 모습 그대로다.

흥 작가의 이력은 광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국가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기억투쟁을 지속해왔다. 특히 태평양전쟁 직후 타이완, 오키나와, 제주 3개의 섬에서 벌어진 학살을 다룬 민중미술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성찰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고 광주 오월을 다룬 그의 작품 역시 제를 같이한다.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아트스페이스씨 지하 공간에는 5·18 역사와 영상자료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745-3693. 전선회기자

극단 배우세상 캠프연극 야외 무대서 8-9일 공연 가람 상주단체 레퍼토리 11-12일 돌문화공원 공연

7월 제주 연극 무대가 잇따른다. 코로나19로 공연장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 임시 야외 무대를 만든 극단도 있다.

코로나19로 무관중, 비대면 공연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극단 배우세상은 그와 다른 '캠프연극'을 펼친다. "연극이란 예술은 관객과 호흡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명이나 음향 시설의 한계를 두고 제주도 아붕로 142에 '노천극장'을 차리고 무대를 빛낸다.

이날 선보일 작품은 로맨틱 스타일 '장르를 표방한 '사랑한다고 말해

줘' (이영 장, 이지은·정귀성 연출). 바람과 바다가 쉬어갈 듯한 무명도에 살고 있는 지선 앞에 이대호가 파도에 쓸려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이영, 정귀성, 이지은, 이화, 문영섭이 출연한다.

공연 일정은 이달 8-9일 오후 7시 30분. 입장료는 전석 2만5000원. 사전 예매시 40% 할인(1만5000원)된다. 일반 좌석, 평상, 텐트 6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입장객에게는 돼지고기 수육과 밥, 김치를 제공한다.

연출자 이영은 "장르에 맞게 달달함 속에서 변화되는 인물들의 분위기, 감정을 최대한 보여주도록 연출했다"며 "작은 야외극장으로 화려한 조명에 부족함이 있지만 거의 사라진 무대 안전으로 배우들의 움직임을 더욱 자연스럽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의 010-5822-0164.

극단 가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

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로 '내 생애 마지막 비가(悲歌)' (원제 동치미, 김용을 작, 김룡 연출)를 공연한다.

이달 11-12일 오후 3시 펼쳐지는 이 작품은 앞서 공연장 상주단체 도내 교류 사업으로 살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선보였다. 이번엔 가람이 상주하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내 생애 마지막 비가'는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의 사연을 모티브로 부부와 자식사랑 등을 그린 작품이다. 극단 가람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작지만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함을 전하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에게진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가슴 속 촛불 하나 밝혀 드리고 싶었다"는 말로 공연 의도를 설명했다.

좌석 간 거리두기로 회당 예약관객 30명만 입장 가능하다. 관람 예약 문의는 722-0794, 710-7731. 전선회기자

가족 향한 그리움, 편지 되고 그림 되어

이중섭미술관 신소장품

내년 1월까지 상설전시 원문자료 7점도 첫 공개



▲ 이중섭의 '사계' (1955). ▲ 이중섭의 '아이들과 복숭아' (1941).

한국전쟁기 서귀포에서 유토피아를 꿈꿨던 화가 이중섭. 그가 남긴 그림과 자료들이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상설전시장에 나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중섭의 그리움, 편지가 되고 그림이 되어' 전이다.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이중섭미술관의 새로운 소장품을 중심으로 꾸렸다. 유화·편지화·엽서화 각 1점과 최초로 원문을 공개하는 7점의 자료 등이 포함됐다.

화가 이중섭은 캔버스가 없으면 종이, 장판, 합판, 담뱃갑 속 은지에 그림을 그렸다. 물감이 없을 때는 폐인트라 에나멜로 작업을 벌였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부산, 통영, 대구, 서울, 진주 등지를 전전하면서도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중섭에게 가족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이중섭이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한국에 홀로 남았던 시절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그 절절한 마음이 읽힌다.

이번 상설전에 놓인 이중섭의 유

화 '사계'는 타이프용지에 네 개의 공간을 만들어 4계절을 표현한 작품이다. 편지화 '아이들과 복숭아'는 이중섭이 둘째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두 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 좋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자상한 아버지의 면모가 드러난다.

엽서화 '아아있는 여자'는 1941년 이중섭이 당시 연인 사이였던 부인 야마모토 마사코(한국이름 이남덕)에게 보낸 그림이다. 이중섭은 1940년부터 1943년까지 연인 마사코에게 글자 없이 오로지 그림만 그린 엽서화를 잇따라 보냈는데 현재 88점이

전해온다. 1940년대 이중섭 그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엽서화는 그 시기 이중섭의 화풍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밖에 이중섭이 화가로서의 의지력을 담아 마사코에게 띄운 한글편지, 1944년 마사코에게 보낸 전보, 1952년 이중섭 부인과 두 아들의 일본 입국증명서, 1956년 이중섭 사망 통지서 원본을 볼 수 있다. 이중섭미술관의 전자 학예연구사는 "이 자료들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이중섭 관련 사실들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전선회기자

문화가 쏘지

목향에 담은 영주십경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2020년 두 번째 '박물관 속 갤러리' 초청 전시로 '매계 영주십경(瀛洲十景)' 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돼 7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엔 서예가 김영선·양상철·정영표 3인이 초대됐다. 목향으로 인연을 맺어온 세 사람은 코로나19로 일상을 시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한우의 '영주십경'을 주제로 행초서 작품 31점을 내걸었다. 매계는 조선말 추사 김정희로부터 배움을 구한 제주 출신의 선비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읊은 영주십경을 품제하고 시를 남겼다. 전시 기획과 작가 섭외를 맡은 양상철 작가는 "영주십경의 원형과 제주의 자연유산과 문화폭력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064)710-7704.

도미술대전 작품 일괄 관리

제주도립미술관은 보관 시설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 작품을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술대전으로 매입된 대상 수상작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장공간과 전문인력 부재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번 결정은 도립미술관이 예술단체의 예로사향 해소 건의와 관련부서의 관리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관되는 작품은 제주미술협이 주관한 제42회 제주도미술대전 종합대상을 수상한 김선일 씨의 '자화상'을 비롯한 대상 작품 7점과 2011년 제주예총이 미술대전을 주관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 부문대상 신승훈 씨의 '향수' 등 대상 수상작 16점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재개

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던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센터점, 삼화점)를 7월 상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7월 상시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 대상 '호기심 쑥쑥! 과학놀이'와 '집중력 짱! 보드게임'으로 총 4회 운영한다. 부모 대상 '우리가족 여름철 면마스크 만들기'와 '아로마오일 향균 스프레이형 소독제 만들기'도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 대상 '고민고민하자마 무료법률상담'도 가동된다. 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는 "전담 직원 외에 시간제 추가 인력을 배치해 주말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의 725-9020(센터점), 725-0525(삼화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주 시장



안 동 우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아대학교 제주동문회
회장 고경호 외 동문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주 시장



안 동 우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과 농촌에 희망의 씨를 심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좌농업협동조합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주 시장



안 동 우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안 동 우 김 태 엽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 흥 마 을 회
회장 김도연